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투자법은
따로 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

부의공식

이지운 자음

길벗

다가올 경제 위기,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번 저서에서는 자산 증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 다루었다. 절대 가볍지 않은 두 가지 주제를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여름부터 고군분투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담기 위해 수정 작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점점 커져가는 양극화,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양극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분배 차이는 점점 커져가고, 낙오된 사람들은 쉽게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

생한 이유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재능과 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대졸자이고,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의 도구는 더욱 시스템화되었다. 근로 시간 또한 세계 최대 수준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점점 커져가고,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걸까? 단순히 운이 없기 때문일까?

부자의 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행운을 부르는 원천은 행운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이다 못해 지나치게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진리다. 실패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다시 도전해야 한다.

1986년에 우주왕복선 쉐린저호가 발사된 이후 73초 만에 폭발한 것은 심각한 결함이 아닌 연료 누수를 막는 단순한 부품 때문이었다. 만약 이때 폭발 원인을 알아보지 않고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의 우주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사소한 연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사소한 연유로 놓친 자신의 행운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

필자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속성을 공부하며 자산을 쌓기 위해 노력했고,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 공부하며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쌓았다. 그렇게 얻은 지식을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 가다듬고 또 가다듬어 본 저서에 담았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필자는 경험과 이론을 통해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터득했다. 많은 독자가 위기 상황일수록 리턴이 많아지는 것을 상기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부자가 될 기회로 삼기를, 자산을 증식해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가 있는 노후를 준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름다운 노후는 위대한 작품이다. 독자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본 저서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1부 | 부자의 태도

위기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된다

2부 | 부자의 마인드

부자가 되는 뇌 구조를 만들어라

3부 | 부자의 금융

불황에 강한 해외 금융 투자

4부 | 부자의 부동산

부동산으로 부의 추월차선 달리기

5부 | 부자의 통찰

부자가 세상을 읽는 방법



위기에 강한 투자법은 따로 있다! 달러와 부동산으로 자산 4배 늘리기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다

필자는 강의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자본주의가 무엇이나고 묻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라는 주장이 가장 적합한 개념인 듯하다.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체제는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히 여기는 이데

올로기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질을 간과하지 못했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

자산 증식의 지름길!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증식이며, 현대인이 가장 빠르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는 부수적인 것들일 뿐이다.

필자의 두 번째 결과물인 이 책은 자산 증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를 거시적이지만 때로는 미시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언제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올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부동산 투자를 옥죄는 국가 정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부동산과 금융을 모두 다뤄야 하는 것이 집필을 하는 데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 함축하고 사족(蛇足)을 없앴기에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 특히 달러를 적절히 배분하면 어떤 과급력이 있는지 이 책 곳곳에 기술했다. 필자는 이 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독자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올인은 금지! 왜 금융 투자를 병행해야 할까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곧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임시소득 등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필자는 큰 맥락으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류했다. 근로소득은 정신적·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자본소득은 재산 소유자가 그 재산을 이용해 얻는 이익이다. 이자, 지료,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자는 근로소득을 이용해 자본에 투자하고 그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필자는 15년간의 투자 이력이 있다. 200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8년간 지독하게 돈을 모았다. 당시 우연히 부동산 컨설턴트 우형달의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를 읽은 뒤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2차, 3차로 유찰된 빌라를 싸게 낙찰 받아 종잣돈을 불렀고 이후 상가, 지하상가, 시행 사업, 소형 아파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갔다. 그런데 전작에서 부동산을 주로 다루었던 필자가 이번 책에서 금융 투자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지만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영향으로 하락할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물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때 오른 것은 달러뿐이었다. 부동산을 통해 자본소득을 만드

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하방 리스크를 헷지(hedge)하고, 즉 부동산의 투자 위험성을 예방하고, 수익을 배가시키는 수단은 달러인 것이다.

위기를 지렛대 삼아 부를 늘리는 부동산 투자와 달러 투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세계 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많은 전문가가 4~5년 주기로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달러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투자한 달러가 과거 IMF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고 가치가 상승해 15억 원이 되었다. 그럼 15억 원을 찾아 그중 5억 원을 50% 이상 떨어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다. 앓은 자리에서 달러로 5억 원을 벌고, 그 돈으로 원래 10억 원이던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 이후 부동산은 다시 10억 원이 된다. 원래 있던 10억 원은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제위기가 지나가고 달러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달러를 10억 원어치 매입한다. 국내 부동산을 사고도 내 원금은 그대로 보존된다.

이후 내 돈 10억 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번에는 20억 원을 찾아 20억 원이던 국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입한다. 경기가 회복되면 그 부동산은 다시 20억 원이 된다. 내 돈 10억 원은 그대로 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앓은 자

리에서 20억 원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두 차례의 금융위기로 내 재산 10억 원은 40억 원이 된다. 그리고 20억 원짜리 건물에서 매년 나오는 수익은 4%,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8천만 원이다. 달러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금 10억 원은 금융위기에 한 번씩 자본소득을 가져다준다. 이런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너무나 간단한 이 공식을 아는 소수의 사람은 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부자가 되었다.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올고 웃을 때 부자들은 경기가 안정되면 달러를 매입하고 달러가 오르면 달러를 팔면서 부를 축적했다. 부동산 투자와 달러 투자는 순식간에 내 재산 10억 원을 40억 원으로, 즉 4배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이것이 부동산과 달러 병행 투자의 핵심이다.



돈에 대한 지식은 절대 권력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행하라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대학원까지 진학하면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교육에 할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재테크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그 어디에서도 금리나 물가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돈을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외한으로 자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물가를 하회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저축만 하는 독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떨어진다. 노후를

위해 은행에 저축만 한다면 나이가 들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레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공부하고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자. 그와 동시에 투자를 병행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어려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금융 지식이 없고, 투자에 대한 감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자. 당신은 이미 필자의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에는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지식과 부동산이 규제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직 젊다고 세월아 네월아 하다 보면 투자해야겠다는 동인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를 수차례 들어도 한 번 실행하는 사람만 못하다.

재테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일단 인터넷을 이용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라. 필자가 추천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만 6개월 이상 꾸준히 읽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접하는 것은 성공 투자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 사람이 많은데, 텍스트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행하는 것이 답이다. 좋은 강의, 좋은 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실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

은 책과 강의로는 결코 얻을 수 없을 만큼 값지다. 대신 가상화폐, 장외주식 등 위험천만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달리 투자에 집중하자. 이 책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련된 좋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달러는 절대 투자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달러의 힘을 견고하게 만드는 시노리지 효과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축통화인 달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즉 시노리지 효과에 대해 기술하려 한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경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라크가 석유 결제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것이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는 2008년에 발간된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회고록에 기술된 사실이다. 달러의 패권을 위해 전쟁도 개의치 않는 나라 미국,

두렵지만 꼭 알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국제통화 체계는 달러가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는 진정한 기축통화로, 국제 거래의 중심으로 사용되는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 즉 달러패권체제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유지됨으로 인해 미국이 얻는 가장 큰 권리(?)이자 위력은 시노리지 효과다.

시노리지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의 봉건영주(프랑스어로 seignior)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과거 봉건시대 때 영주는 자신의 성 내에서 화폐 주조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영주나 왕이 걷어 들인 '화폐주조세'를 뜻하는 말이다. 봉건시대 때도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금화를 발행했다. 이때 제조비를 줄이고자 금화에 구리나 은 등의 불순물을 섞어 시노리지 효과를 누렸다. 현재 각 나라의 중앙은행도 주조 차익, 즉 시노리지 효과를 보는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시노리지(Seigniorage) 효과란?

화폐의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뺀 차익을 말한다.

달러의 수요는 무한대, 공급은 미국의 자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만큼 돈을 벌지만(화폐 제조 시 들어간 비용은 차감) 우리나라의 원을 포함해 자국에만 통용되는

화폐의 경우,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달러는 다르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전 세계에 유통되고, 미국의 FRB는 유일하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 즉 발행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또 달러의 수요는 무한대에 가깝다. 그만큼 FRB의 힘은 막강하고,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만큼 다시 달러를 찍어 공간을 채울 수 있다.

미국은 재정이 부족해지면 달러를 찍어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면 자국 내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진다. 이때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달러를 공급한다. 이 경우, 정부부채는 증가할 수 있지만 종이돈인 달러를 2~3센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유통전기를 돌려 찍으면 타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금을 매입해 금 보유량도 늘릴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금 보유량은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보자. 독일의 벤츠를 1억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1달러는 약 1,000원이라고 하자. 미국은 벤츠를 사기 위해 100달러짜리 화폐를 1,000매 인쇄한다. 달러를 찍는 비용을 1달러라고 가정하면 1,000매를 찍는 데 겨우 1천 달러가 소요된다. 즉 미국은 100만 원으로 독일의 명품인 벤츠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막강 권력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달러의 시노리지 효과는 막강하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 전 세계에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과거의 봉건시대 영주처럼 전 세계에 글로벌 영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 결론을 지어보자. 봉건시대 영주도 재정 적자로 세금을 걷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돈을 찍어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감자, 밀, 빵의 가격이 50% 급등하고 소작농들의 실질소득은 50% 감소한다. 영주가 걷는 세금은 그대로인데, 소작농들의 살림은 팍팍해진다. 영주는 세금을 늘리지 않았지만 왕실 재정을 더 건고하게 확충해 공간을 채운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세금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발 금융위기를 통해 본 국내 부동산의 현주소

위기의 전조가 오고 있다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이 책 곳곳에 언젠가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와 금융 투자에 대해 소개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2020년 3월,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과시켰고, 우리나라도 100조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화답하듯 코스피지수는 반등했고(2020년 3월 25일 기준 1,678.84포인트), 미국

다우지수도 2만 포인트를 다시 넘어섰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발 금융위기가 국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복잡다단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를 유추하고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를 기술하려 한다.

금융시장으로 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최근 금융시장을 살펴보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부동산 시장은 추세가 살아 있다면 변수는 무시해도 된다. 부동산의 특성상 매수와 매도 거래 자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격 조정 기간이 짧다면 하락 폭 또한 미미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다르다. 시간이 제한적이고, 낙폭이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주일 동안의 주가 하락이 주식시장을 과거 10년 전으로 회귀시켜놓았다.

이를 회복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401K 연금처럼 직장인 월급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주식과 펀드에 묶어두게 해 주식시장에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시스템이 없다. 금융에 장기 투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기함을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쉽게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 코로나발 금융위기 사태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이 환율 급등으로,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1천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책을 내놓았다.

기업의 도산은 현재 스코어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한미 통화스와프로 일단 진정시킨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높을수록 가장 강대국인 미국으로 자산 회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적절히 해결한 것이 통화스와프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닥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 가장 악질적인(?) 리스크 하나는 일단 해결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각나라 구매 담당자는 경기를 예측하는 점쟁이

부자는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 공부는 필수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본, 즉 돈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비행기 이코노미석 탑승객은 스포츠 신문을 보지만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경제 신문을 본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자는 자수 성가형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길 꿈꾼다. 하지만 돈에 대해 공부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길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주

단순한 경제지표 하나만 알아도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고, 그 길목에서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는 대개 6개월 이후 경기 흐름을 예상하는 지표로, 전월에 비해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내려가면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종합지수'라고도 불리는 지수로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 제외),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수출입물가지수, 구인구직비율, 장단기금리차 등이 있다.

재고순환지표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으로 물건을 내보내는 출하 증가율(전년 동월비)과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 증가율(전년 동월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산업별 체감 경기를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대지수	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다.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선박 제외)	선박을 제외한 국내의 69개 설비용 기계류 수주액 지수다. 설비용 기계류는 제조업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기계의 수주액이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수주액	통상적으로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량을 뜻한다. 건설수주액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건설할 물량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건설수주액이 높아지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피지수	보통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코스피지수는 선행종합지수의 대표적인 개별 지표 중 하나다.
수출입물가지수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이다. 보통 수출 단가가 수입 단가보다 높아야 수출해서 남는 게 있다. 무역 조건이 좋아질수록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인구직비율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기업에서 직원을 구하는 비율이다.
장단기금리차	장단기금리차가 좁아지면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차이가 커지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필자가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투자 방향을 알려주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길을 안내하듯 경기 방향을 가늠케 하는 지수들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증가했는지, 즉 증감률이 중요하다.

이 지수들을 종합해 100 이상이면 경기가 팽창할 것을 의미하고, 그 이하이면 경기가 하락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100 이하에서 높아지면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5-6개월 이상 이 지수들이 꾸준히 하락하면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투자법은 따로 있다!



이지윤 지음 | 344쪽 | 17,000원

- ▶ 위기에 강한 부자들의 불패 투자법 대공개
- ▶ 마인드부터 실전투자까지 자산을 4배로 늘리는 부의 공식
- ▶ 달려와 부동산 병행투자로 부의 지름길을 타라!